책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· 책미사

별자리 진단서

에스파다 · 곧 책미사의 2026년 · 함께 읽은 책 16권

어떻게 살지 묻다가,
함께 사는 세상으로 걸어 나온 한 해



이 진단의 기준 · 책미사가 바라는 독자

여덟 질문을 오가며 자기 생각을 세우는 사람

발행 2026. 11. 5. 1단계·2단계 모두 공개 AI 독서 진단 · 세로

1단계 · 지켜본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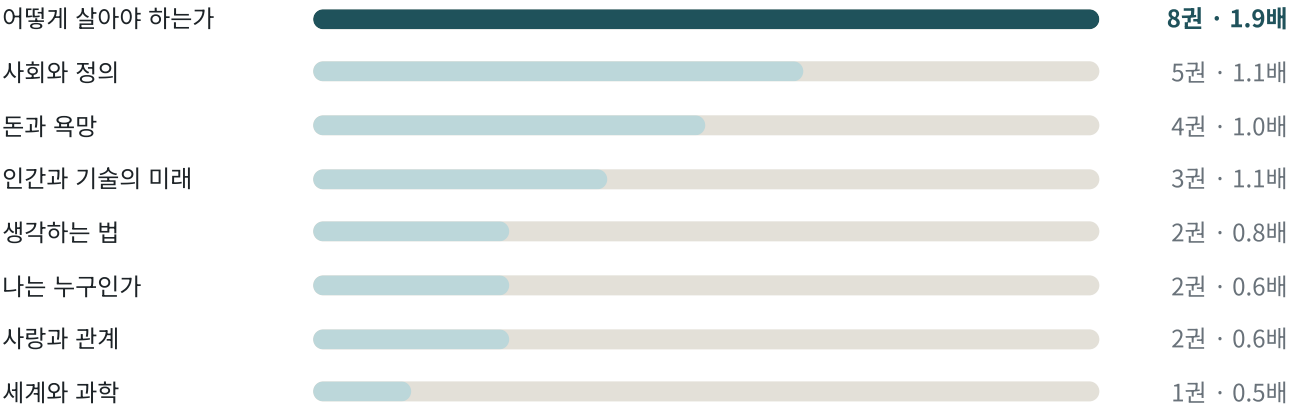
AI 독서 진단 · 에스파다 2026

어떻게 살지 묻다가, 함께 사는 세상으로 걸어 나온 한 해

함께 읽은 책 **16권** (1~10월)　문학산책 **6** · 지정독서 **5** · 경제독서 **3** · 수요독서 **1** · 오프모임 **1**　별을 켠 질문 **여덟 모두**

에스파다는 방장으로 모든 모임에 함께했습니다. 그래서 에스파다의 2026년 별자리는 곧 **책미사가 올해 연 책의 별자리**입니다. 이 진단은 책미사 스스로에게 내리는 진단이기도 합니다.

질문별 책 수 · 배수는 7년 동안 함께 읽은 167권과 견준 값



지켜본 것

한 해는 '어떻게 살아야 하는가'로 열렸습니다. 1월 편안함의 습격, 2월 사이토 히토리, 3월 노인과 바다, 4월 나희덕 시집까지 넉 달 내리 이 질문이었습니다. 1~5월 일곱 권은 '어떻게 살아야 하는가'와 '돈과 욕망'이 넷씩, 나와 내 살림을 묻는 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.

6월 20일 백년의 고독부터 걸음이 넓어집니다. 6~10월 아홉 권에서 '사회와 정의' 다섯 권, '생각하는 법'과 '사랑과 관계' 두 권씩이 모두 이때 켜졌습니다. 윗집 부부, 너무 시끄러운 고독, 죄와 벌,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로 이어지며 '나는 어떻게 살까'가 '우리는 무엇이 공정한가'로 옮겨 갔습니다.

걸음도 빨라졌습니다. 상반기에는 한 달에 한 권 남짓이었는데, 8월 수요독서가 생기면서 8~10월 석 달에 여섯 권, 한 달에 두 권꼴로 읽었습니다.

기준에 비추어

'여덟 질문을 오가며'에서 보면, 책미사는 한 해 안에 여덟 질문을 모두 건넜고 16권 가운데 11권이 두 질문에 걸쳤습니다. **오가기**는 하고 있습니다. '자기 생각을 세우는'에서 보면, 8월부터 질문의 서재에 거의 모임마다 질문이 쌓이기 시작했지만, 생각하는 방법을 정면으로 다루는 '생각하는 법' 책은 두 권으로 7년 평균보다 적었습니다. **세우기**는 자리를 막 만들기 시작한 해입니다.

다음 한 걸음

11월 21일 문학산책 《빨강의 자서전》은 올해 얇은 칸 가운데 둘, '사랑과 관계'와 '나는 누구인가'에 별을 하나씩 더하고, 올해 한 번도 이어지지 않은 두 질문 사이에 첫 선을 긋습니다.

2단계 · 비판도 공개합니다

책미사가 연 책을 7년 평균에 대어 보면

여덟 질문은 모두 건넜습니다. 빈 칸은 책미사가 채울 몫입니다

회원 진단서는 '열린 책 가운데 무엇을 골랐나'를 봅니다. 에스파다는 열린 책을 모두 읽었으니, 여기서는 **책미사가 올해 무엇을 열었나**를 7년 동안 함께 읽은 167권의 비율에 대어 봅니다.

질문	2026	1~5월	6~10월	7년 대비	읽기
어떻게 살아야 하는가	8	4	4	1.9배	쏠린 칸
사회와 정의	5	0	5	1.1배	고른 칸
인간과 기술의 미래	3	1	2	1.1배	고른 칸
돈과 욕망	4	4	0	1.0배	고른 칸
생각하는 법	2	0	2	0.8배	고른 칸
사랑과 관계	2	0	2	0.6배	얇은 칸
나는 누구인가	2	2	0	0.6배	얇은 칸
세계와 과학	1	1	0	0.5배	얇은 칸

1 **'세계와 과학'이 한 권, 그마저 산업 이야기입니다**

올해 이 칸의 책은 5월 신약의 전쟁 하나이고, 그 책도 '돈과 욕망'에 함께 걸친 제약 산업 이야기입니다.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과학책은 올해 한 권도 없었습니다. 7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.

2 **'나는 누구인가'는 4월 뒤로 꺼졌고, '사랑과 관계'는 두 해째 얇습니다**

두 칸은 주로 문학산책이 채워 왔습니다. 그런데 하반기 문학산책 네 권이 모두 '사회와 정의'에 걸쳤습니다. 세상으로 걸어 나온 대신 나와 곁의 사람을 묻는 자리가 비었습니다. '사랑과 관계'는 2025년에도 한 권뿐이었습니다.

3 **'어떻게 살아야 하는가'가 열여섯 권 중 여덟 권입니다**

그 가운데 편안함의 습격,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,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답을 건네는 책입니다. 같은 해 생각하는 방법을 다루는 '생각하는 법' 책은 두 권이었습니다. 답을 주는 책이 이어지면 모임은 생각을 세우기보다 답을 받아 적기 쉽습니다. 같은 질문이라도 노인과 바다, 죄와 벌처럼 답 대신 물음을 남기는 책과 번갈아 열 때 기준 문장에 가까워집니다.

4 **기록이 모임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**

16권 가운데 참석 기록이 남은 모임은 대부분 한두 사람만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5권 이상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이 아직 둘뿐입니다. 진단은 기록만큼만 정확합니다. 이것은 회원이 아니라 방장의 몫입니다.

2단계 · 다음 넉 달

2026년 11월~2027년 2월

얇은 세 칸을 채우고, 끊긴 선을 잇기

11월 21일

《빨강의 자서전》 · 문학산책

'사랑과 관계'와 '나는 누구인가'에 별이 하나씩 더해집니다. 올해 이 두 질문은 한 번도 한 책에서 만나지 않았는데, 이 책으로 처음 선이 이어집니다. 4월 나희덕 시집 뒤로 처음 다시 시의 말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

12월~1월 한 권

과학책 한 권을 열기

'세계와 과학'을 정면으로 묻는 책으로, 되도록 '인간과 기술의 미래'에도 걸치는 책을 고릅니다. 올해 이 두 질문 사이에는 선이 없었습니다. 한 권으로 가장 얇은 칸을 채우고 새 선도 하나 긋습니다.

2027년 1~2월

답을 주는 책 다음에는 묻는 책

'어떻게 살아야 하는가' 책을 열 때 바로 다음 모임에는 '생각하는 법'이나 '나는 누구인가' 책을 둡니다. 받아 온 답을 다음 모임에서 다시 따져 보게 하는 순서입니다.

모임마다

그날 참석 기록 남기기 · 방장

모임이 끝난 날 참석한 사람을 운영 기록에 적습니다. 회원이 할 일은 없습니다. 기록이 쌓이면 회원 진단서와 '누구의 별자리'가 저절로 정확해집니다.

2027년에 다시 보면

여덟 질문 **모두 한 해 세 권 이상**, 올해 8개였던 질문 사이의 선 **12개 이상**,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회원 **둘에서 다섯으로**.

이미 잘한 것

한 해 안에 여덟 질문을 모두 건넜고, 6월부터는 '사회와 정의' 다섯 권으로 한 질문을 깊게 이었습니다. 수요독서가 생긴 8~10월에는 한 달에 두 권꼴로, 올해 가장 빠른 걸음이었습니다.

어떻게 만들었나. 2026년 1~10월 책미사에서 함께 읽은 책 16권과, 2020년부터 함께 읽은 책 167권에 붙인 여덟 질문으로 셌습니다. 한 권이 두 질문에 걸치면 두 칸에 모두 셉니다. '1.9배'는 올해 연 책 가운데 그 질문의 비율을 167권 전체 비율과 견준 값입니다. 1.2배 이상은 넉넉한 칸(1.5배 이상은 쏠린 칸), 0.7배 미만은 얇은 칸으로 읽었습니다. '선'은 한 책이 두 질문에 함께 걸쳐 두 질문이 이어진 것을 말하며, 여덟 질문 사이에는 28개의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표지 그림은 생각의 지도 그래프에서 '연도별 별자리 · 2026년'을 고른 모습입니다.